

## <2019년 재일대한기독교회 · 일본기독교단 평화 메시지>

재일대한기독교회 총회장 김 중 현  
일본기독교단 총회의장 이시바시 히데오

재일대한기독교회와 일본기독교단과는 1984년 선교협약을 체결한 이후, 35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을 연결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적의 벽을 헐고, 둘을 하나로 묶는 화해와 평화의 주가 되심을 믿으며, 아래와 같이 평화의 메시지를 선언합니다.

### <천황의 교체에 대하여>

올해 5월 천황의 대가 바뀌면서 새로운 년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주권자인 일본에 있어서 사회생활의 시간이 천황의 교체에 지배되는 것에 대해 강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또한 천황의 교체에 따르는 일련의 행사들은 신도의 치장 속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을로 예정되는 대상제는 신도의 행사 그 자체입니다. 이런 것들이 공식적인 행사로서 행해지는 것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정교 분리 원칙에 위배되며 기본적인 인권인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아키히토 전 천황은, 오키나와를 시작으로 태평양 제도에의 '추도 여행'을 반복해 왔습니다. 거기에는 평화를 바라는 의지는 나타났지만, 과거의 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관여했던 쇼와 천황의 책임이 표명되지는 않았습니다. 전후 74년간 일본의 국가와 국민이 천황과 일본 국가의 역사 책임을 불문에 부치고 온 자세가 거기에 나타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일 관계에 있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나, 이른바 <징용공> 문제 등의 깊숙한 곳에는 이러한 전후 책임의 문제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북아시아에서 일본이 진정으로 화해와 평화를 구축하는 길을 가기 위해 전쟁과 식민지 지배의 역사와 관련된 전후 책임을 자각하고, 계속 표명해 갈 것입니다.

### <헌법 제9조와 안보 문제에 대하여>

지금 오키나와의 민의를 짓밟으며, 또한 환경 파괴를 동반하는 헤노코(辺野古) 미군기지 건설공사가 강행되고 있습니다. 주권국가 일본이, 일·미 안보 조약과 일·미 지위 협정에 의해 미국에 종속되어져 가고 있다는 노골적인 증거입니다. 우리들은 오키나와 사람들의 헤노코기지 반대 성명을 지지하고 연대해 갈 것입니다.

아베 정권은 북한과 중국의 위협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대결 자세를 드러내며, 무기 수출 3원칙 보고서(2014년 4월), 집단적 자위권 행사 허용(같은해 7월), 안보 관련 법제(2015년 9월)에 이어, 헌법 제9조에 자위대 명기를 주장하고 전쟁할 수 있는 나라의 길을 향해 달려 가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전쟁 포기와 전력(戰力) 보유를 금지하고 교전권을 부인하는 현행 헌법 9조는 세계 평화의 상징이며, 세계를 향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에 기초하여 헌법 제9조 개정을 단호히 반대하는 동시에, 일본과 한반도 비핵 · 평화의 길 구축을 선교의 사명으로 인식하고 나아갑니다.

### <원자력 행정과 후쿠시마 방사선 건강피해에 대하여>

동일본 대지진에 동반하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 1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는, 세계에 영향을 미쳐 독일을 비롯한 나라들이

원자력 발전의 축소 · 폐지로 정책을 전환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기존과 같이 원자력 정책을 고집해, 방사선 피폭 피해(갑상선암 등)의 철저한 규명은 커녕 원전 사고와 건강 피해의 관련성조차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연 환경의 돌이킬 수 없는 파괴를 초래할 수도 있는 정부의 자세에는 핵무기 개발 계획 또한 의심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와 도쿄전력의 이러한 자세에 대하여 분노와 우려를 표명함과 동시에 탈원자력 발전의 길을 제창하며, 방사선 건강 피해 상황의 철저한 구명을 요구합니다.

### <헤이트 스피치 문제에 대하여>

2016년 6월에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이 시행되었으나, 별척이 따르지 않는 이념법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가두, 인터넷에서의 재일 코리언에 대한 헤이트 스피치 행동은 그치지 않고 그 확산은 심각합니다. 1923년 관동 대지진 때에는 이러한 차별적 유언비어로 인해 조선인 학살 사건이 일어난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생명을 위협하며 사회를 파괴하게 하는 헤이트 스피치 방지를 위해서 보다 철저한 법 개정을 강력히 원합니다.

### <조선고교 무상화 문제에 대하여>

일본 정부는 북한과의 외교상의 문제를 이유로 불합리하게도 조선 고등학교를 고교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것은 재일 코리언에 대한 명백한 민족 차별이며, 자녀들의 교육권에 대한 침해 행위로서 유엔의 인권 기관에서도 재차 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 정부가 차별 정책을 즉시 철회하고 조선 고등학교의 무상화를 실현하도록 요구합니다.

### <재일 외국인 정책에 대하여>

일본 사회의 노동력 부족에 따라 <기능 실습 제도>가 실시된 지 10년이 되었지만 국제 공헌이라는 법적 목적과는 다르게 외국인을 저임금 노동력으로 흡수하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입관법 개정 에 의해서 새롭게 <특정 기능 1호 · 2호>라는 재류 자격이 설치되었는데, 이것은 기능 실습생의 재류 기간을 끝맺는 저임금 노동 체제를 온존 시키려는 것입니다.

현재, 이미 재일 외국인 280만명, 외국인 노동자가 무려 150만명에 이르는 한편, 1만명을 넘는 재일 외국인 아동이 미취학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들은 일본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를 사용하고 버리려는 발상에 근거한 입관 행정을 개정하고 공생을 존중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기를 강력하게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지구를 석권하는 과욕한 그로발 경제 체제로 인해 급변해 가는 사회에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엡2:19)으로서 기류자를 환대의 정신으로 받아들이는 교회로 개혁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 자체가 이제부터 다음 시대를 향해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보냄을 받고 쓰임받는 길인 것을 믿습니다.

## 교역자연수회로 캐나다 방문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따라서」 궤적을 돌다



원로선교사들과 함께

2019년의 재일대한기독교회(이하KCCJ) 교역자 21명이 지난 6월10일~13일에 캐나다 토론토를 방문하였다. 우리 재일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생애를 헌신한 캐나다 선교사들의 흔적을 답습하고, 1927년 부터 92년 동안 34명의 선교사를 KCCJ에 파송하였던 캐나다장로교회(이하 PCC),총회 및 캐나다연합교회(이하 UCC) 총회를 방문하면서 생존해 계신 9명의 원로선교사들과의 교류, 또한 토론토에서 캐나다 선교사들의 조선선교와 재일동포 선교의 활동을 정리한 자료 전시관 등을 방문하고 토론토의 한인교회를 방문하여 같은 디아스포라교회로서의 깊은 교류를 가지면서 뜻깊은 3박4일의 일정을 가졌다.

6월10일 월요일 오후에 토론토에 도착한 일행은 해외한민장로회(이하 KPCA) 밀알교회(노송환목사)에서 환영 만찬과 함께 개회예배로 시작하여, 11일에는 캐나다장로교회(PCC) 총회본부를 방문하였다. 옛날에 촬영한 KCCJ의 각 교회들의 사진을 전시한 자료실이 우리를 먼저 맞이해 주었다. 회의실에서는 PCC와 UCC의 임원 및 실무자 등과 함께 보고회 및 간담회, 그리고 오찬을 나누면서 귀한 시간을 가졌다.

오후에는 KCCJ 선배 목사들이(김원치, 이인하, 최경식, 김득삼, 황의생, 김필순 등)이 유학해서 공부하였던 토론토대학 녹스칼리지를 방문하였다. 175년 역사의 이 대학은 캐나다장로교회의 지도자를 배출하는 유서 깊은 세계적인 신학교이다. 학장, 부학장이 대학을 소개하였고, 질의 응답으로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맥인도선교사 비석(토론토 한인장로교회 경내)



글렌 데이비스목사 강연

이날 저녁 시간에서 토론토한민장로교회(PCC,손명수목사)의 초청으로 만찬과 함께 원로 캐나다 선교사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먼저 주제 강연을 과거 후쿠오카교회에서 목회하였던 글렌 데이비스목사가 담당하였다. 글렌 데이비스목사는 <쌍방향 선교>라는 제하에서, 15년의 재일대한기독교의 사역을 마치고 일본에서 캐나다로 귀국할 때에는, 일본에서 캐나다의 교회로 다시 파송을



재일선교사 자료 전시관



캐나다장로교회 방문



원로선교사들에게 감사인사

받는다라는 마음으로 귀국하여 새로운 사역에 임할 수 있었다는 말을 남겼다. 글렌 데이비스목사는 유창한 한국어로 당시의 선교상황을 전하였고, 아홉 분의 선교사가 차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그 당시의 일본에서의 선교역사를 회상했다. 우리는 그 고귀한 헌신과 수고에 감사하며 인사를 나누고 맥인도선교사(John McIntosh)의 기념비가 있는 캐나다한인장로교회를 뒤로 하였다.

6월12일 토론토 시내에 있는 「재한·재일캐나다 선교사전시관」을 방문하였다. 관장인 황환영장로, 총무 이항수집사의 안내로 재한캐나다선교사 및 재일캐나다선교사들의 역사와 상황을 사진과 자료로 접할 수 있었다. 캐나다선교사로서, 재일동포 선교의 문을 열었던 L.L.영 선교사의 사진에는 “천국에 오거든 나를 한국인 가운데서 찾으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어 우리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였고 이 전시관은 차세대 선교를 향한 젊은 헌신자들이 방문하여 큰 도전을 받게하는 학습 센터로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오후에는 인근에 있는 나이가가라 폭포를 관광하면서 나이가가라한인교회(KPCA 서옥수목사)를 방문하여 중식과 함께 교제를 나누었다. 우리를 초청해 주신 서옥수목사는 KPCA 총회장 재임 때에 KCCJ 선교100주년 기념식과 경도교회에서 가진 제50회 정기총회에 내빈으로 참석한 적이 있다.

폐회예배는 수요기도회를 겸하여 토론토영락교회(KPCA,송민호목사)의 초청으로 만찬과 함께 김종현 총회장의 보고와 교류를 가지면서 모든 공식 일정을 마쳤다.

그 옛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마게도니아의 환상에 따라 떠나던 조선 땅으로, 그리고 일본 땅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평생을 섬겼던 캐나다선교사들, 그들의 신앙과 선교의 비전은 이제 일본에서 다음 세대의 KCCJ를 계승해야 하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으로 이어지리라 믿는다.

집회장소 제공과 식사를 대접해 주신 밀알교회, 토론토한민장로교회, 나이가가라한인교회, 토론토영락교회와 안내와 통역을 맡아 수고하신 David McIntosh선교사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보고 : 교육위원장 김인파목사)

## 公告 在日大韓基督教会 第55回 定期總會 召集

在日大韓基督教会 第55回定期總會を總會憲法第13章(總會)、第60条(定期總會組織)、第61条(定期總會召集)と總會規則第2章(定期總會)、第3章(總代)第3条(總代及び準總代)、に基づいて次のように召集します。

(1) 主題: 「믿음을 키워 이 세상의 빛으로」(요 8:12)

「信仰をはぐくみ、この世の光に」(ヨハネ 8:12)

(2) 日程: 2019년 10월 13일(主日) 19:00 ~ 10일(火) 17:00

(3) 会場: 在日大韓基督教会 名古屋教会 名古屋市中村区名駅2-39-11 (☎052-541-1980)

※「總代・準總代の交通費・宿泊費は各地方会が負担し、女性会・青年会代表はその機関が負担する」

(總會規則 第3章第3条4項)

2019年 8月 1日

在日大韓基督教会 總會長 金鐘賢 書記 趙永哲

## 제52회 일본기독교단과 의 선교협력위원회 개최

지난 6월 3일(월) 일본기독교단(이하 UCCJ)과 재일대한기독교회(이하KCCJ)의 선교협력위원회가 동경 일본그리스도교회관 UCCJ회의실에서 가졌다.

〈양 교단의 선교과제에 대하여 — 2·8, 3·1 독립운동 100주년과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가진 급변 위원회에는 UCCJ에서는 총회장 이시바시 히데오 목사를 비롯하여 11명이, KCCJ에서는 총회장 김종현목사와 7명의 대표가 참석하였다.

주제에 따라서 이성전장로(川崎교회)가 100년 전에 동경에서 조선 유학생들에 의한 2·8독립선언의 의의와 한반도에서 일어난 3·1 독립운동에서 기독교회의 역할 등에 대한 강연을 하였다. 각 교단의 보고와 선교적 과제를 나누면서 특히 UCCJ의 〈목회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상담 전화〉 개시의 보고에는 KCCJ에서



도 그와 같이 목회자가 가족들에 대한 돌봄의 필요성을 공유하였다.

2019년도 <평화메시지>의 초안에 대하여 협의하고 각 교단의 8월 기관지에 게재하기로 하였다.

## 캐나다장로교회 정기총회에 총회장·총간사가 참석

교역자 연수회를 위해 캐나다를 방문한 총회장 김종현목사와 총간사 김병호목사는 지난 6월5일, 토론토 근교에서 개최된 캐나다장로교회 145회 정기총회에 내빈으로 참석하여 인사하며, 92년 동안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재일동포선교에 협력해 온 감사의 뜻을 새긴 감사패를 전달하여 만장의 기립박수를 받았다.



청년회전집

## 제3회 중앙위원회 개최 하계수양회 개최를 향해 토의

2019년4월27일(토)~28일(주일), 愛知県民の森에서 제3회 중앙위원회를 가졌다. 이 장소는 금년에 개최되는 제70회 여름 수양회 개최지 예정이기도 해서 견학을 겸해서 이 장소에서 가지게 되었다.

첫 날 회의는 각부 보고를 시작으로 여름 수양회 프로그램 내용 등의 회의를 하였다. 다음날은 주일예배를 중부지방회 산하 6 교회(長野、浜松、豊田めぐみ、豊橋、岐阜、大垣)에 흠어져 참석하면서 신도들과 교제하고 청년회 활동을 소개했다.

올해 여름 수양회는 70회 라고 하는 의미있는 수양회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힘을모아 준비하기로 했다. 다음 제4회 중앙위원회는 관서와 서부지방에서 가지기로 했다.

(보고:간춘기)

전국여성회

## 창립70주년 기념식 열어 제62회 정기대회도 겸하여

2019년 6월 24일(월), 전국교회여성연합회(이하: 전국여성회) 창립 70주년 기념식을 大阪教会에서 주님의 축복과 인도 가운데 치를 수 있었다. 기념식에는 해외, 일본 각지에서 약 170명이 모여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전국여성회 7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함께 어우러져 은혜 넘치는 시간을 보냈다.

제1부 기념 예배에서는 정영원 목사(오사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롬11:25~29)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였고 배정애목사(교토교회)의 집례로 성찬식을 거행하고 전국여성회 제 9대 회장이었던 경혜중명예목사(시나가와교회)의 축도로 기념예배를 마쳤다.

제2부 기념식에서는 내빈으로 참석한 한국교회여성연합회 민경자 전 회장, 캐나다장로교회 여선교회의 Janet Brewer 회장, 일본기독교협회의 여성위원회의 기타무라 케이코 위원장, 사회복지법인 살롬 케어하우스 색동의 집 권옥화 이사장, 재일대한기독교회 총회장 김종현목사가 축사를 하였다.

제3부 심포지엄에서는, 캐나다장로교회 여선교회의 Sarah Kim총무가 연대의 중요성에 대하여,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신미숙총무는 “교회의 여성들이여! 생명과 평화를 찬양하라”라는 제목으로 연합과 일치를 위한 운동, 탈핵, 생명, 평화 운동, 교회 개혁 운동, 에큐메니칼 여성의 연대에 대하여, 전국여성회에서는 이현지회장이 대표로 목사의 권력주의, 교회 여성의 계몽 활동, 선교 활동 지원 등 전국여성회 회원들이 함께 공유해야 할 과제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하여 말했고 질의 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제4부 기념 이벤트에서는 전국여성회 활동, 그리고 70년 간의 역사를 되돌아 보는 촌극에서는 역대 회장, 역대 총무, 여성회원의 사진 등 추억의 사진이 스크린에 비춰져 몹시 그림계도 옛날을 기억하는 시간이었다. 이벤트 후에는 리셉션을 가져, 음식을

나누며 대화의 꽃을 피우는 즐거운 시간이었다.

70주년 기념 행사를 위해, 이해와 협력을 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70주년을 맞이한 우리 전국여성회는 “주께 접붙임 된 자로서~새 시대를 개척하는 교회 여성”으로 주제와 부제를 내걸고 80주년, 100주년을 향해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께 접붙임 된 자로서 새로운 시대를 개척할 교회 여성이 되어 매진해 나가려 한다.

이에 맞추어 다음날에는 제62회 정기대회를 가져 새로운 위원을 아래와 같이 선출하였다.

會 長: 李炫知 (神戸)、副會長: 宋福姬 (名古屋)、  
書 記: 李正子 (名古屋)、副書記: 李惠淑 (東京)、  
會 計: 李銀珠 (横浜)、副會計: 梁律子 (神戸)、  
教 育 局: 金錦順 (布施)、  
宣教社会局: 李敏禮 (西新井)、  
財 政 局: 姜志鮮 (大阪)、  
心のケア局: 崔美惠子 (武庫川)、  
関東会長: 朴英遠 (品川)、中部会長: 金珍明 (長野)、  
関西会長: 高慶美 (大阪)、西部会長: 兪貞惠 (武庫川)、  
西南会長: 李好子 (小倉)、  
會計監査: 韓榮蘭 (福岡)、慎静子 (豊中第一復興)  
總 務: 石橋真理恵



## 熊本教会

지진 3년만에 새로 건축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쁨의 헌당식

1951년에 설립된 熊本教会가 2016년4월에 熊本·大分 지진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그동안 자원봉사 센터 <엘피스 쿠마모토>의 피해가 지원활동의 거점으로 역할을 감당해 왔다. 그리고 지진피해로부터 3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힘입어 교회당을 재건축하였다.

지난 2019년7월15일, 서남지방회 각교회, 일본기독교단 큐슈교구 일본기독교도교회 큐슈총회 각 교회에서 120명이 넘게 참석한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헌당식을 거행하였다.

건평 70평으로 1층은 예배실, 사무실, 게스트룸 등, 2층은 목사관으로서, 주차장도 넓게 만들었다. 총공사비 약 7,000万円, 그중에 1,000万円은 값아야 할 빚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또한 교회당 건축에 일본기독교단 <熊本·大分地震被災 교회당 재건 지원 모금>에서 500万円을 지원 받았다. 교단 큐슈교구와 KCCJ와 함께 활동하고 있는 「エルピスくまもと」와 쿠마모토교회의 재건축은 선교협약의 실질적 열매라 할 수 있다. 이제부터 그러한 활동에 이 교회당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란다.

(보고 : 김성효목사)

## 서부여성회

3역 확대 연석회의 열어  
2019년도 활동계획 등 토의

서부지방교회여성연합회 제18회 삼역확대연석회의가 2019년 5월 30일 (목) 오후 1시부터 히메지 교회에서 5교회 20명의 참가로 개최되었다.

2019년도 활동계획에 대해서, 전국교회여성연합회 창립 70주년 기념식, 그리고 제62회 정기대회 참가, 1일 연수회, 제32회 수양회, 제17회 평신도모임, 회장 회의, 세계기도일, 제22회 부활절 합동찬양예배 참가 등을 토의하였다. (보고 : 윤풍자)



## 京都教会

横山正一장로 장립식 거행  
명예권사 및 명예집사추대식도 동시에

지난6월16일(주일)오후, 교토교회에서는 横山正一(요코야마세이이치) 장로 장립식과 조화순명예권사 및 김두천, 김옥련, 손매자, 호시아마에이코, 손국지, 김안자, 허인자 명예집사의 추대식이 거행되었다.

관서지방회 여러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된 예배에는 김무사목사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고전16:13~18)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였고, 이어서 거행된 장로 장립식과 추대식은 교토교회의 당회장이며 관서지방회장인 임명기목사의 사식으로 집행되었다.

특히 이 행사에 한국의 자매교회인 부산 평광교회에서 우두영목사, 최찬기장로가 참석하여 축사를 하는 등 기쁨이 넘치고 은혜로운 식전이었다.

금번 장립을 받은 横山正一장로는 1953년에 교토에서 출생하였으며 2011년부터 집사로, 2015년부터 안수집사로 교회를 섬겨왔다.

## 서남지방회

헤이트 스피치를 생각하는 집회  
헌당식후에 규슈교구와 공동으로 개최

7월15일, 신축교회당 헌당식을 마친 오후에 쿠마모토교회에서 <헤이트스피치를 생각하는 공동집회V>를 가져 49명이 참석하였다.

마이너리티선교센터 김신아목사를 맞이하여, <이야기> 결여에 관한 <위험>에 대하여 배웠다.

강연에서 오늘날 <증오>의 뿌리에는 언어의 저하, 개인의 이야기의 상실이라는 현실이 가로막고 있는데도 그것을 알게 하지 않고 오히려 <세계>가 구성하고 있는 것을 알게 하고 있다. <세계>의 방식에 익숙해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는 타인의 아픔을 없는 것으로 해 버리는 <세계>의 표피를 벗겨 그 아래에서 숨쉬고 있는 타인의 고통과 고뇌의 <세계>에 몸을 위치하고 몸을 사용하여 평화와 화해를 만들기 위한 몸짓으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 것을 배웠다.

법률에 의해 폭력을 감축해 나가는 동시에 예수를 따라 날마다의 생활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평화와 화해를 구축해야 하는가를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다. (보고 : 윤선박목사)



## 관동지방회

동경희망그리스도교회서 위임식  
구자우목사가 새로 부임하여 성대히

지난 5월26일(주일) 오후, 관동지방회 동경희망그리스도교회에서는 구자우목사의 위임식이 거행되었다. 임시당회장 김병호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에는 주준태목사(고신총회 중경총회장)가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 (계 22:1-7)의 설교를 하였다. 관동지방회장 김병철목사의 사식으로 거행된 목사 위임식은 서약과 기도, 선포로 이어졌다.

이번에 관동지방회로 부터 동경희망그리스도교회의 담임목사로의 목회를 위임받은 구자우목사는 1957년 한국에서 출생하여 고려신학대학교 학부 및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1989년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경동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았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고신 총회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일본선교사로 파송받아 동경희망그리스도교회의 청빙으로 부임하였다.

특히 구자우목사는 고신총회 사무총장 재임시, 우리 제일대한기독교교회와 고신총회가 선교협약을 체결하는 일에 큰 역할을 하였으며, 앞으로 한국교회와의 협력과 교류에 큰 역할을 감당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가족으로는 부인과 2녀가 있다.

## &lt;알림&gt;

●사정에 따라 복음신문 7월호는 휴간했습니다.

●총회 사무국은 8월13일(화)~16일(금), 하계 휴가로 업무를 쉽니다.